

국가어항 기본시설 97% 이상이 양호

2007년 안전점검 결과 최상 50%, 양호 47%, 보통이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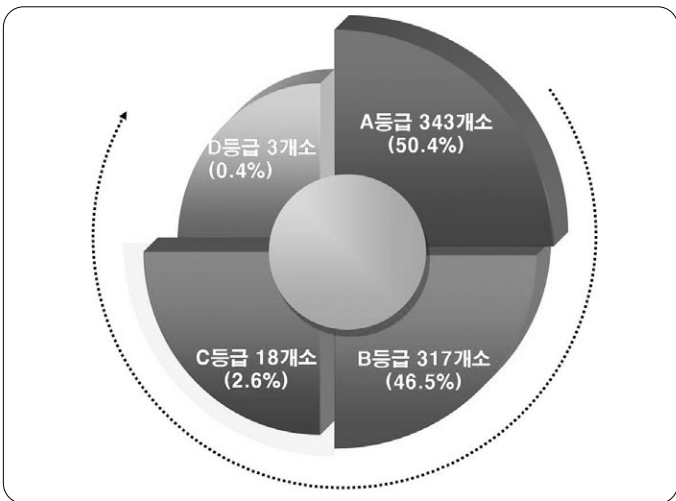
104개 국가어항 681개 기본시설 대상



한 국어촌어항협회가 위탁업무로 실시해온 국가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지난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정성이 대부분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물에 대한 멀티빔 단면조사, 수상 및 수중부 외관 조사,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밀점검(수중조사)은 대대포항, 덕산항, 어청도항, 구산항, 읍천항, 능포항 등 6개항 19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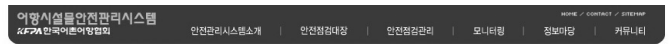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국가어항 기본시설 중 방파제(190개소), 물양장(159개소), 안벽(4개소), 방사제(17개소), 호안(110개소) 등 총 68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50.4%인 342개소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46.5%인 318개소가 구조물의 주요부는 건전한 상태지만 보조부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또, 18개소 2.6%는 보통 상태인 C등급, 3개소 0.4%가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그리고 즉시 사용금지를 요하는 E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C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16개항 21개 기본시설 중 13개소는 보수·보강 계획이 수립되어 공사 시행중이며, 7개소는 신규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개소는 사용제한 조치됨.) 소흑산도 방파제의 경우 긴급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보수방안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중 보수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동 업무와 관련하여 『2007년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및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이력이 담긴 안전점검대장 『어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http://fishingport.or.kr>)구축』 On-line Open 운영하고 있다.



어항청소선 · 크린오션호 '08년 업무 개시

2월 18일부터, 어항청소 대상확대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위주로 연안 수역 정화

한 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청소선 7척과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린오션호'가 2008년 업무에 착수했다.

어항청소선은 지난 2월 18일, 전남 목포 연안, 전남 고흥 녹동항, 전남 여수 국동항, 경남 통영 삼덕항, 경북 포항 발산항, 강원 주문진항 등을 시작으로 어항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11월까지 10개월 간 동·서·남해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적당 120일씩 침전오폐물, 부유물 등 연안 수역 정화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어항청소선 운영의 중점 추진방향은 △어항청소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수역의 정화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홍보 및 예방지도활동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104개 국가어항 중 청소가 필

요한 국가어항 63개항과 지자체 및 수협이 요구하는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89개항, 인근 연안수역을 중심으로 어항 및 해양정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수협, 해경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항내 청소 수거물의 처리와 어항 내 청소업무시, 유류 오염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의식고취를 위해 항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을 선박에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린오션호'는 3월 3일부터 인천 남항부두 앞 해상에서 오·폐물을 수거하며 올해 업무

에 착수하게 된다.

'크린오션호'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50일, 덕적도 및 승봉도 20일 등 총 130일 동안 서해안 일대 어항·항만 및 연근해 해역에서 기본정화업무를 수행하고 주변 어장정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1,250억원 들여 연안어선 2,000척 감척

어업자원의 적정수준유지를 위해... 근해어선도 80척 감축

해 양수산부는 올해 국고 1,000억 지방비 250억 등 1,250억을 들여 어업자원의 적정수준유지를 위해 연안어선 2,000척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WTO-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에 지원되어 온 각종 보조금 감축, 어업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류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어업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시급히 어선을 감척해 어업자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한계에 직면한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4년부터 실시하여 온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올해 대규모로 추진하여 어선어업을 폐업하고 다른 산업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의 지원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2.5% 상향 조정하였으며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적당 최고 한도는 4,000만원으로 동결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에서 20%를 분담하며,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폐선처리 완료 후 지급함으로써 감척참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되었던 폐업지원금과 어선과 어구에 대한 잔존평가액의 지급시기를 올해부터는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어선어구를 인도받고 어업허가증을 반납 받은 후 당해 어선원부에 설정된 담보권 등 권리설정 사항의 해소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 2,000척의 시도별 배분은 관내 연안어선 세력을 기준으로 50%를 우선 할당하고, 지난해 10월 시도를 통해 조사된 감척 희망수요

20%, 지역별 특이 소요 15% 및 2007년도 사업추진이 우수한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해 배분하였다. 그 결과는 전남 478척, 경남 454척, 전북 319척, 제주 184척, 강원 153척, 충남 135척, 경북 122척, 부산 71척, 인천 63척, 울산 18척, 경기 3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당 사업비는 평균 6,25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연안어선 감척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6,30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2004년 639척, 2005년 841척, 2006년 1597척이며, 지난해에는 2836척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80척에 대한 감척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해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40여억 원이 늘어난 335억원을 배정하였다.

근해어선 감척사업도 연안어선과 같이 폐업지원금에 국한해 금년부터 최저가 응찰자를 잠정사업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로 추진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업종별·톤급 구간별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국고) 수준을 입찰예정가로 제시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